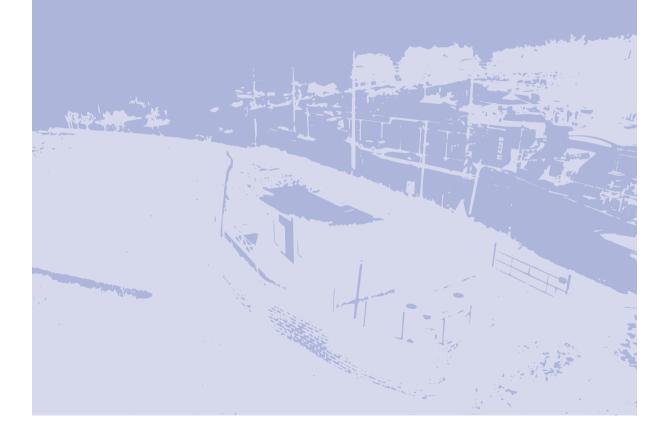
2⁰2] 기<mark>저의 세상보기</mark>

전직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A씨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

う 경인일보

남국성 기자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의 가족 명의 회사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 부지를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은 호연산업 주식회사의 등 기부등본상 지점에는 수원 도이치오토월드 내 편의점이 있었다. 수원 도이치오토월드는 해당 공무원이 맡았던 사업 중 하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도우기자(2021.3.23)

지역 신문 기자는 어떤 기사를 써야 할까

'지역 신문 기자는 어떤 기사를 써야할까'. 지역 신문사에서 일을 시작한 지난 1년 5개월 동안 늘 스스로에게 되물었던 질문이다. 현장 냄새가 물씬 풍기는 기사, 사안을 냉정하고 촘촘하게 해석하는 기사, 아무도 몰랐던 정보를 폭로하는 기사. '기자가 써야 하는 기사'에는 답이 될

수 있었지만 '지역 신문 기자가 써야 하는 기사'에 대한 답이 되지는 못했다. 평생을 고민해도 답을 찾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그 때 예고도 없이 해답의 실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기사를 물 먹었다. 3주 동안 기획취재 팀에서 파견 근무를 한 후 정치부로 복귀

122 |

'도이치' 유치 담당자의 형제, 편의점 대표 2명과 이름 같아

워삼면 반도체 단지 전·현 공무워-주민대표 투기 의혹 '일파만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삼면 조성 재직기간 투자 업무 전반 조사 이 공식화되기전 인근 부자를 매압한 전 ·현직 공무원들을 돌라싸고 논란이 이어 준공후 편의점 운영허가 마쳐

질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용인 반도 가족회사 질문에 "관계가 없다"

워상면 '반도체 클러스터' 정보

사전 유출·투기세력 활용 의혹

서기업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했다. 수원 연관성을 물었지만 "관계가 없다"고 말 압했다. COIXIO E 워드 사이도 A씨이 소유 거치 하다. 이후 초가 이작은 무기 의해 저하 다 차 이 따른 1971년 두기가 되 된 하

들어서 있었다. 해당 편의점은 A씨의 형

도아지도로 배드 사업도 소세의 손을 꾸전 , 했다. 이후 추가 입장을 본기 위해 전화 사업이다. 착공당시 도가 배포한 보도자 료에도 당당자로 유제가 당시되었다. 소액 호선산업 수원자집으로 통득된 호선산업 수원자집으로 등득한 호선산업 수원자집으로 등득한 호선산업 수원자집으로 등득한 호선산업 수원자집으로 등득한 호선산업 수원자집의 하당 반의점에 대해 역사 전환인 선생 자역에서 이징을 오랫동안 사업이다. 작동생이 느가 예요한 보고서 많이는 답당되고 유지가 당시하 있다. 2일 호선선은 수업자원으로 등록한 현실선은 수업자원자 많은 인생님 수업자원자 해당 인생하여 대체에 아이울 오랫동안 오아당으로 또 대체 사용에는 관련에 본 연기 위에 연락을 취했지만 당자 있다. ■전직 원삼면장, 지금은 용인시 반도 3.3㎡(1평)당 가격은 약 옛만원이다.

경인일보 신문 지면(2021년 3월24일자 3면)

한 첫날이었다. 지난 3월23일 중앙지에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A씨가 가족 명의 의 회사인 호연산업 주식회사 명의로 본 인이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했던 용인 반 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 부지를 구매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도청 출 입기자가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를 놓쳤으니 그야말로 최 악의 상황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보도했 지'라는 의문과 함께 '이 보도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지'라는 근심이 마음을 짓 눌렀다

당장 호연산업 주식회사를 알아보라 는 지시가 떨어졌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터 파악했다. 등기부등본에는 본점 주 소지, 지점 주소지, 설립일, 임원 등이 적 혀 있었다. 사진을 찍어 선배에게 전달했 다. "수원 도이치오토월드가 이 사람이 담당했던 사업이야" 호연산업 주식회사 지점 주소지인 수워시 고색동 도이치오토 월드를 가리키며 선배가 말했다. 수원 도 이치오토월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복합단지다. 이곳에 가보라는 이야기에 그 러겠다고 답했다. 선배의 한 마디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는 정확하게 알지 못 했다

그날 오후 1시께 현장을 찾았다. 1층 의 안내도를 살펴봤지만 호연산업 주식회 사라는 명칭은 찾을 수 없었다. 건물 관 계자의 도움으로 등기부등본상 주소지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호연산업 주 식회사가 아닌 CU편의점이 있었다. 어리 둥절한 마음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호연산업을 물었지만 처음 듣는다는 말 쁜 편의점 사장과도 연결이 됐지만 "관계 없다"는 말 뒤로는 연락조차 끊겼다. 해 당 편의점의 온라인 채용 공고를 확인해 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이름을 다시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정보 사전 유출·투기세력 활용 의혹

2년 전부터 '개발 도면' 유포 확인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구체적 표시 중개업소 "그때부터 땅 거래 늘어" 사업부지 일대 '부르는게 값' 폭등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용인시 원삼면 일대에 2년 전부터 토지이용계획 등의 구체적인 내 용이 포함된 '개발 도면'이 유포된 것으 근 화이돼다. 사어 초지 과정에서 도며이 유출됐을 가능성과 함께 해당 도면 유포 에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이 개입됐 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는 지난달 20일 용인시에 반도체 제조공 장을 건설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해 대개발 도면. 다. 이어 경기도가 위삼면 일대에 사업비 120조위 규모의 반도체 통하 클러스터를 조성하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산업통상 지이용계획이 표시돼 있다. 함께 입수된 이용계획도와 위치도 같은 개발 도면이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용의 워상면 익대 부동사시장에 2년저부터 유 포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일 /독자제공

와. 이주자택지·단독주택 등 용도벽 토 위성사진에는 개발 예정지가 붉은색 점 퍼지기 시작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선으로 표시돼 있으며, '대상지 내 용인 고 말했다. 시축구센터, 취락지구, 공장 등이 입지

이다. 이 간으 도명이 화이되면서 양하 이닉스측의 내부 사업계획이 사전에 유 출돼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이 활용 해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16년 832건이었던 토 지 거래 거수는 도면이 유축되시기로 알 려진 지난 2017년에는 1천42건, 2018년 1 천189건으로 늘었다.

사업부지 일대는 3.3㎡당 40만~50만 원에 거래되던 도로변 논밭이 150만~ 200만위대에 실거래가 이뤄지는 등 이미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땅값이 급등하 고 있다. 일부 계약자들은 아직 중도금 은 반지 않은 경우 계약군이 두 배른 위 약금으로지급하면서까지 매매계약을해 지하고 있다

위사면의 한 부동산중개인소 과계자 는 "2년 전부터 급작스레 토지 거래가 많 이 이뤄졌다"며 "아마도 기때부터 토지

/이상후기자 sh2018@kveongin.com

SK하이닉스는 2019년 2월 용인 원삼면 일원을 반도체 클러스 터 예정부지로 발표했다. 열흘 뒤 경인일보는 2년 전부터 클러 스터 부지 경계가 선명한 도면이 유출돼 투기 세력 참고서가 됐 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DB

물었지만, 아르바이트생은 모른다고 답했 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길을 안내해줬던 건물 관계자를 다시 찾았다. 쓰레기 배 출 문제로 편의점 사장과 싸웠다는 이야 기가 생각나서였다. 건물 관계자는 사장 이 두 사람이고 형제 관계란 사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직접 한 사람의 이름을 확인 해줬다.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대표자 명 과 성 가운데 이름이 똑같았다. 두 사람 은 형제 관계일까. A씨와의 관계는 무엇 일까. 호연산업 주식회사와 CU편의점의 관계는 무엇일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경인일보에서 경기도청 출입기자가 반 드시 써야 하는 기사가 있다. 공무원 인사 기사와 부고 기사다 도청 공무워들이 어 떻게 이동하는지 알아야 해 인사 기사는 눈여겨 살펴봤지만 부고 기사는 그러지 못했다. 그런데 문득 부고 기사가 도이치 오토월드 1번 게이트 앞에서 벼락처럼 떠 올랐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10년 동 안 경기도청에서 근무했다. 부고 기사엔 상을 당한 공무원의 이름, 그 다음으로 해당 공무원의 형제들과 배우자의 이름이 나라히 등장한다 부고 기사만 찾는다면 A씨의 형제들의 실명도 파악할 수 있다. A씨의 이름과 부고를 붙여서 구글에 검색 했다. 2010년 7월 동아일보 부고 기사가 눈에 띄었다. A씨의 이름과 함께 취재 과 정에서 확인한 두 사람의 이름이 연이어 적혀 있었다. "선배, A씨와 편의점 사장들 이 형제 관계인 것 같습니다"라는 카톡과 링크를 바로 전달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 었다

막상 기사를 작성하려니 앞이 막막했 다. 등기부등본상 호연산업 주식회사의 지점에 A씨의 가족들로 추정되는 사람들 이 소유한 CU편의점이 있다. A씨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수워 도이치오 토월드 사업 유치에도 참여했다. 이 사실 들이 알려주는 건 무엇일까 팩트를 얼기 설기 엮어 기사를 완성했지만 자신이 없 었다. 사수 선배가 수정해 준 기사를 확인

1 125 124



지난 3월24일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호연산업 주식회사의 본점인 용인시 보정동의 한 건물 702호를 찾았지만 5곳으로 쪼개져 있었고 모두 다른 기업들이 입점해있었다.

했다. "23일 A씨를 고발한 경기도가 그가 재직 기간 담당했던 투자 유치 업무 전반 을 조사키로 한 가운데, 그를 둘러싼 의 혹은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이다. A씨 가 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 호연산업 주식회 사는 그가 유치 업무를 맡았던 수원 도이 치오토월드 내에 지점을 둔 것으로 파악 됐다." "A씨의 손을 거쳐 탄생한 공간에 준공도 되기 전 그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지점을 내고, 이곳에 A씨의 형제 로 추정되는 이들이 편의점을 운영 중인 것이다." 현장에 가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 한다고 하더라도 이 팩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지 못하면 기사를 작성할 수 없 다. 누군가의 잘못을 고발하는 기사라면 그 잘못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명확하게 기사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하루는 중앙지에 기사를 물 먹으며 시작했지만 이후에는 중앙지에 물을 먹이며 끝을 냈다. 단독기사를 내보냈던 중앙지는 경인일보 보도가 나온 다음 날에서야 호연산업 주식회사와 도이치오토월드 내 CU편의점 간 관계를 조명한 기사를 내보냈다. 도이치오토월드가 A씨가 담당했던 사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낸사수 선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기사였다. 다른 기자들에겐 없는 선배만의 렌즈, 수년 간 한 자리를 지켰던 지역 기자

경인일보

[단독]'투기 의혹' 전 경기도 공무원 가족도 개발예정 인근 땅 구매



고 알려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 부지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호연산업 주식회사 땅을 구매한 것보다 한달 앞선 시 점으로 취재를 통해 A씨와 관련된 부동산 투

기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지난 3월26일 A씨와 가족으로 추정되는 B씨의 주소지가 호연산업 주식회사가 구매했다

26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먼 독성리 필지에는 주번 논밭보다 터를 4~5m가량 북돋아 옹벽을 세워져 있었다. 2021.03.26 / 손성배기자

26일 찾은 해당 필지에는 주변 논발보다 터를 4-5m가량 북돋아 응벽을 세웠고 이 터 위에는 조립식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이 조립식 건물 주변엔 측백나무 100여그루가 심겨 있었고 필지 경계에는 벤스가 둘러져있었다. 용벽 너머 에는 가지치기가 된 나무 10여그루가 있었다. 토지 수용 보상가액을 높이기 위해 성도를 하면서 조립식 건물과 나 무, 펜스 등 지장물을 설치한 것 아니나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원삼초등학교 앞 2차선 도로와 높이를 맞추면 서 매립한 토목 자제와 나무, 펜스도 지장물로 토지수용 보상금액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의 눈이었다. 사수 선배만이 아니다. 사회부 선배들은 이날 '전현 공무원·주민대표 아들까지 '반도체 부지' 줄줄이 샀다'는 기사를 작성했다. 용인시 현직 공무원, 해당 지역의 전직 주민대표 가족의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부동산 투기 의혹 기사였다. 경인일보는 이미 2년 전인 지난 2019년 3월 용인시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고 투기 세력이 이를 활용한다는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잊었지만 선배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을 시작으로 이틀 연속 A씨와 관

련된 기사들을 출고했다.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호연산업 주식회사의 본점인 용인시 보정동의 한 건물 702호를 찾았다. 702 호는 5곳으로 쪼개져있었다. 5곳 모두 다른 기업들이 입점해 있었지만 어디에서도 호연산업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다. 입 점한 회사 문을 두드리고 건물 관계자를 찾아 수소문했다. 인근 부동산까지 찾아 갔지만 "그런 회사는 처음 듣는다"는 말 만 돌아왔다. 해당 건물 7층 사무실 등기 부등본을 모두 떼어봤다. 그러다 701호에 본점을 둔 회사 '펫말'에서 A씨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펫밀의 대표이사인 B씨 와 사내이사로 등재된 A씨의 거주지는 같 았다. 도이치오토월드에서 CU편의점을 유 영하고 있던 A씨의 가족 역시 펫밀의 감 사로 등재돼있었다. 모두 가족으로 추정되 는 대목이었다.

수십 장의 등기부등본을 떼고, 서류상 에 적힌 주소지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지 난한 과정이었다. A씨와 A씨의 가족이 임 원으로 있는 '유령회사'는 모두 세 곳이 었는데 그 중 한 곳은 도내 산업단지 개발 에도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취재 과정 에서 담당자의 이름에 A씨가 들어간 보 도자료를 정리해보니 2013년부터 2019년 까지 총 42개였다. 그는 '경기도 믿고 투 자하면 도민이 행복하게 웃는다' (2017년 12월11일자 보도자료)고 했고 그 과정에 서 '쓰러져가던 대형개발사업 재개 이끌 어내' (2019년 3월21일자 보도자료)기도 했다. 경기도청을 퇴직한 이후 그는 도내 시·군에서 투자 유치 전문가로 활동하면 서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했다. 누구보다 도내 개발 사업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 정보는 그대로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 서 이용됐다

A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종지부를 찍은 건 그 다음 기사였다. 지난 3월26일 금요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살펴보던 찰나, 익숙한 지명이 눈에 들어 왔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A씨 와 가족으로 추정되는 펫밀의 대표이사 B 씨의 주소지가 호연산업 주식회사가 구매

했다고 알려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부지였다. 현장을 즉시 방문 해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사회부 선배와 함께 현장으로 이동했다. 주소지에는 자갈 이 깔린 조립식 건물이 있었다. 건물 안에 는 인기척이 없었다. 선배는 수종은 물론 나무가 심긴 간격 등 도드라지는 지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 건물 부지를 구매한 시점은 지난 2018년 9월 호연산업 주식회사가 땅을 구매한 것보다 한 달 앞선 시기였다. 이를 부동산 투기로 볼 수 있을까 선배는 곧장 원삼면 일대 개 발 사업을 샅샅이 알고 있는 취재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선배는 2년 전 투기 의혹을 보도했을 때부터 현재 까지 이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다. 통 화를 마친 선배가 말했다. "기사 작성하면 돼" 본인이 투자 유치를 담당했던 곳에 투 기했다는 의혹을 받는 A씨가 이번엔 가족 명의로 인근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한 사실 이 확인된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6시44분 '[단독] '투기의 혹'전 경기도 공무원 가족도 개발예정 인 근 땅 구매 '기사가 출고됐다. 40분 뒤 경기도 보도자료가 나왔다. "경기도 자체조사 결과 용인 부동산 투기 전직 공무원 A씨 추가 투기 의혹 발견. 고발 조치"다른 언론들은 경기도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지만 경인일보는 한 발 앞선 자체 단독 기사로 도민들에게 A씨 관련 추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A씨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B씨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지인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부지에 조립식 건물이 들어서 있다. 김금보 기자(2021,3,28)

가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을 전달했다.

지난 3월31일 다시 용인시 보정동에 있는 호연산업 주식회사 본점을 찾았다. A씨가 방문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서였다. 공실이었던 사무실 한 곳에 '호연산업'이라는 간판이 붙어있었다. 건물관리인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수차례 A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회신은 한번도 없었다. 경기도로부터 고발된 A씨는 경찰 수사를 토대로 지난 4월16일 구속됐다. A씨와 관련해서는 아직 밝혀지

지 않는 사실들이 많다. 왜 2017년에 호 연산업 주식회사를 설립했는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제 2년차인 지역 신문 기자에게 남겨진 일은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다. 어떤 의혹들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었는지 잊지 않아야 한다. 선배들이 그랬듯 다른 의혹이 발견될 때까지 묵묵히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다음 기사를 써야 한다. A씨와 관련된 경기도 자체 조사 결과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128 I